

한국 교육과정의 변화 양상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700-0-11>

손영은,

문학 박사, 조교수,

남서울대학교 한국어학과, 천안, 대한민국

Email: koresye@nsu.ac.kr

ORCID <https://orcid.org/0009-0002-5028-0007>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수립 및 개정 과정을 추적하고,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의 철학과 인간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교육과정은 단순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의 목록이나 지식의 내용을 넘어서, 국가가 어떠한 인간을 길러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과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체제를 모두 포괄하는 설계도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의 교육 체제가 지난 80여 년간 겪어온 패러다임의 유동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동 및 시대정신과 얼마나 긴밀하게 상호작용해 왔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지속해서 개정되어 왔으나, 공통적으로 개정 필요성 검토, 시안 개발, 의견 수렴, 심의, 고시, 현장 적용이라는 체계적인 6단계 절차를 거쳐 확립되는 제도적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전인적 성장, 민주 시민 양성, 평생학습 기반 형성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아 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공통적 기반 위에서 전개된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 단계를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해방 직후 및 초기 교육과정(교수요목기~제1차) 시기에는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교육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건설과 국가 재건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다. 미국식 경험 중심 교육사상이 도입되었으며, 사회적 혼란 속에서 문맹 퇴치를 위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학력 배양과 전인교육의 초기 형태가 수립되었다. 둘째, 산업화 시기(제2차~제3차)에는 국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맞물려 교육이 국가 발전의 핵심 도구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에는 생산성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실업·기술 교육이 전면화되었으며, 학문의 기본 구조를 강조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본격 도입되었다. 또한 국민교육현장의 이념을 투영하여 국가관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셋째, 민주화 시기(제4차~제5차)에 접어들면서 과거 국가 중심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체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고, 인간 중심 교육과 학생의 자율성, 창의성이 새로운 교육 가치로 부상하였다. 교육과정 운영의 지방분권화와 자율화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이다. 넷째, 정보화·세계화 시기(제6차~2015 개정)에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무한 경쟁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특히 단순한 지식의 암기에서 벗어나 실제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핵심역량 중심 교육' 체제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현재 적용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대전환기라는 문명사적 대격변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 체제의 완성 단계이다.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양과 융합적 사고 능력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고교학점제 등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 체제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교육과정은 해방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한 기초 교육에서 시작하여, 산업 사회의 지식 중심 교육, 민주 사회의 인간 중심 교육, 정보화 사회의 역량 중심 교육을 거쳐, 오늘날 디지털 대전환기의 미래 맞춤형 교육으로 진화해 왔다. 이러한 변천 흐름은 한국 교육과정이 고정된 교과 체계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인간상을 쇄신하고 학습자의 삶과 사회를 연결해 온 역동적인 혁신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성찰을 통해 향후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과정 체제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제어: 국가수준 교육과정, 교육과정 변천사, 홍익인간, 역량 중심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 교육.

CHANGES AND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DUCATIONAL PROGRAMME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700-0-11>

Son Young-eun,

Ph.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Korean Studies,

Namseoul University, Cheonan, Republic of Korea

Email: koresye@nsu.ac.kr

ORCID <https://orcid.org/0009-0002-5028-0007>

Annotation. *The article deals with the issues related to educational cooperation and academic exchanges between China and Ukrain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analyse the fundamentals of the Ukraine – China cooperation in the spheres of education and science. The tasks are: 1) to outline the historiography of the Ukraine – China cooperation; 2) to provide a description of academic mobility programmes intended for both academic staff and students; 3) to introduce challenges faced by Ukrainian teaching staff and students in engaging with academic mobility programmes. The conducted research allowed the authors to come to certain conclusions. Official documents have been defined as the legal basis for cooperation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which enabled spanning the Ukraine–China cooperation chronologically within these spheres: 1.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1992); 2. Early Agreements Supporting Sectoral Cooperation (1992–1995); 3. Expansion into Strategic Cooperation (2001–2013); 4. Intensification of Agreements (2016–2020); 5. Continuity of Cooperation During Geopolitical Shifts (2020 – 2026). The historiographical analysis of the profession-oriented training aimed at would-be Chinese language translators in Ukraine reveal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stages of the Ukraine – China diplomatic relations and the evolving features of translator and interpreter education at each stage of the profession's development. It is illustrated how this development has resulted in substantial transformations in training objectives and curricula, strengthened requirements for professional competences in Sinology and established new admission criteria for the specialties “Secondary Education” (Chinese/English) and “Philology” (Chinese/English; including Translation) within the period from 1992 to the present. A set of interrelated factors that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al process and the implementation of academic mobility programmes in Ukraine has been specified.*

The perspectives of future research are seen in the study of further acade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Ukraine involving the use of innovative methodological tools as well as IT and AI-driven applications in the modern context of Ukraine.

Keywords: Ukraine, China, educational cooperation, academic exchanges, agreements and memoranda, Confucius Institute, academic mobility programmes.

1. 한국의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의 개념

교육과정이란 교육을 통해 어떠한 인간을 길러내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육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교과목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와 방향,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식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¹ 다시 말해 교육과정은 교육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떠한 인간상을 실현하고자 하는가를 제시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교육과정이란 결국 20~30년 후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인간상을 고민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반영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설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² 따라서 국가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개정하게 된다.³

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조직한 문서이며, 나아가 이를 실행하는 과정과 성취한 결과를 포함하는 일련의 계획’이라 한다. 검색일: 2026.05.02.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5530>)

² 교육부youtube,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정리」, 검색일: 2026.05.02, (<https://youtu.be/60BU8sQ3Zr0?si=G18cn4IKRwtTdHw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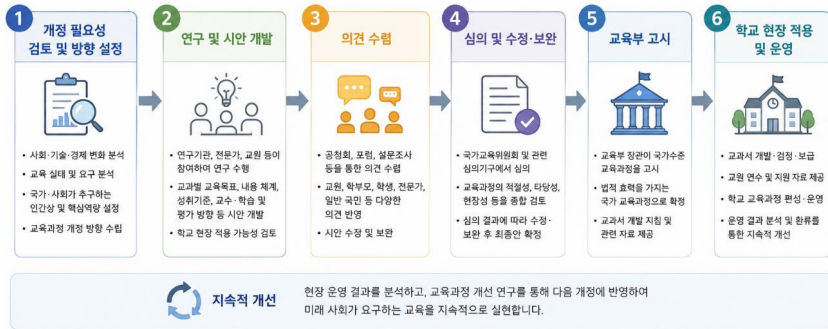
³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교육과정」, 검색일: 2026.05.02,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5530> 교육과정 분야의 기본질문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났을 때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이다. 이 질문은 위로는 ‘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가의 교육목표, 아래로는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의 교수학습이나 수업, 나아가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의 교육 성과평가 및 개선과 차례로 관련된다. 즉 교육과정은 위로는 교육목표 달성의 수단이자, 아래로는 교수학습을 위한 계획이자 준비이며, 교육평가의 대상이 된다. 주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보다 바람직한 미래 교육과정의 창의적 개발’이다.

나. 한국 교육과정의 수립 및 개정 과정

한국의 교육과정은 시대 및 상황에 따라 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졌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향 역시 변화해 왔다. 예를 들어 초기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재건과 기초 학력 함양이 강조되었고, 이후에는 민주 시민 교육, 창의성, 핵심역량, 디지털 역량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공통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립·개정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6 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⁴

한국 교육과정 수립·개정 과정 (6단계)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개정합니다.



<그림 1. 한국 교육과정 수립 개정 과정>

한국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본 방향을 설정한 후,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이후 전문가와 교원, 학부모,

⁴ 교육과정의 수립 과정은 초창기인 교수교육기부터 최근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필요성 검토, 시안 개발, 심의, 고시 및 현장 적용이라는 공통된 흐름을 유지해 왔다. 다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각 단계의 운영 방식과 강조점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어떤 시기에는 전문가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고 또 국가 주도의 정책 결정이 강조되었으며, 또 다른 시기에는 국민 의견 수립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한국의 교육과정 수립 방식과 참여 범위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기본적인 절차와 흐름 자체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그림1>은 한국의 교육과정 수립 과정의 일반적인 흐름을 도식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이후 교과서 개발과 교원 연수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학교 현장에 적용·운영된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과정이 단순한 교과 내용의 제시가 아니라 국가가 추구하는 인간상과 미래 사회의 방향을 반영하는 국가적 차원의 교육 설계 과정임을 보여준다.

다. 한국 교육과정의 목적

한국의 교육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한국의 교육 이념에 대해서는 ' 제2조(교육이념)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⁵ 이러한 교육 이념은 한국 교육과정 전반의 방향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형성하고 공동체 속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다. 즉, 한국의 교육과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역량 함양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교육이 단순히 교과 내용을 암기하고 학업 성취를 높이는 과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형성하고 공동체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교육과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강조되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 형성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 양성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 왔다.

초기의 한국 교육과정은 해방 이후 국가 재건과 사회 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여 기초 학력 함양과 국민 의식 형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산업화 시기에는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 중요한 교육 목표로 제시되었으며,

⁵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기본법」 참고, 검색일: 2026.05.0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

근면성과 협동심, 산업 사회에 필요한 실용적 능력이 강조되었다. 민주화 이후에는 인간 중심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학생의 자율성, 창의성, 참여 의식 등이 중요한 교육 가치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에 들어서는 정보 활용 능력과 세계 시민 의식, 의사소통 능력 등이 강조되었으며, 최근에는 AI·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소양과 융합적 사고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등이 중요한 교육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교육과정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에 따라 강조점은 달라졌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습자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교육과정은 단순한 교과 중심 교육을 넘어 학습자의 삶과 사회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교육과정은 지식의 양 자체보다 지식을 실제 삶 속에서 활용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⁶

또한 한국의 교육과정은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도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민주 사회에서 시민은 단순히 지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협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교육과정은 공동체 의식, 배려와 존중, 참여와 소통, 책임 의식 등을 중요한 교육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사회와 세계화가 확대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태도 역시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⁷

한국 교육과정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평생학습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과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⁶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1차 이전~2022 개정시기 총론」, 참고, 검색일: 2026.05.02. <https://www.ncic.re.kr/inv/org/list.do>

⁷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보도자료」, 참고, 검색일: 2026.05.0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2138&utm_source=chatgpt.com#pressRelease

개발이 요구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역시 학생들이 단순히 학교 교육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⁸ 정리하면 한국의 교육과정의 목적은 전인적 성장, 민주 시민 양성, 미래 사회 대응 역량 강화, 평생 학습 기반 형성, 자기주도적 학습과 진로 개발, 다양성 존중과 세계 시민 의식 함양이라 할 수 있다.⁹

한국 교육과정의 목적



<그림2. 한국 교육과정의 목적>

라. 한국 교육과정의 특징

한국의 교육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먼저 국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는 점이

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목적 및 비전」, 참고, 검색일: 2026.05.02. <https://www.nile.or.kr/usr/wap/detail.do?app=13309&seq=5&lang=ko>

⁹ 주지한바와 같이 시대와 상황에 교육과정의 양상이 다르듯 그 목적 역시 조금씩 다르기는 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한국의 교육과정의 목적을 정리하면 이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징적이다. 이른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란 국가가 공통적인 교육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이 운영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공통 교육 내용을 유지하고 교육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지역이나 가정 환경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인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교육기본법] 8조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란 의무교육을 비롯한 국민 즉, 학생들이 공통적인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

또한 한국의 교육과정은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는 특징을 가진다. 해방 이후 교육과정은 국가 재건을 위한 기초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산업화 시기에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개정되었다. 이후 민주화 시기에는 인간 중심 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었고, 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에는 정보 활용 능력과 국제적 소양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교육과정이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사회 변화와 국가적 요구를 반영하며 발전해 온 유동적인 체계임을 보여준다.¹¹

한국 교육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교육체계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각 단계는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 수준에 맞추어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최근의 교육과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 중심 교육이 아닌 실제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중요하게 다루는 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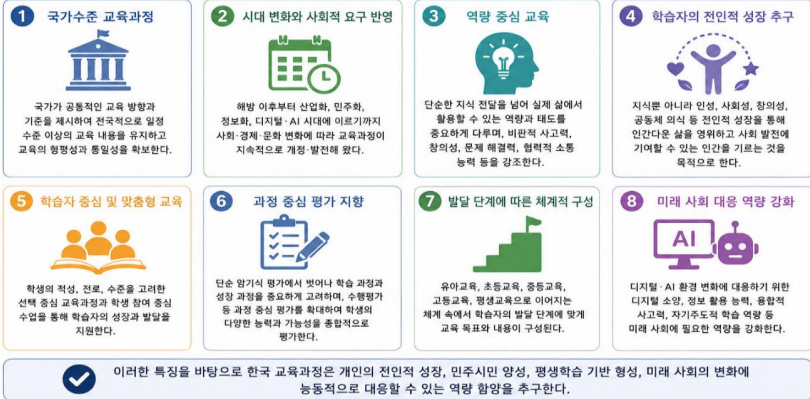
¹⁰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기본법」 참고, 검색일: 2026.05.02;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 교육과정 성격」, 검색일: 2026.05.02, 참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lev=0&statusYN=W&s=moe&m=0404&opType=N&boardSeq=93458>

¹¹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1차 이전~2022 개정시기 총론」, 참고, 검색일: 2026.05.02. <https://www.ncic.re.kr/inv/org/list.do>

해결하고 실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²

한국 교육과정의 특징

한국 교육과정은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학습자의 성장과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림 3. 한국 교육과정의 특징>

또한 최근 한국의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의 획일적인 교육 방식이 아닌 학생 개인의 적성과 진로, 학습 수준을 고려한 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은 단순 암기식 평가가 아닌 학생의 성장 과정과 학습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과정 중심 평가와 수행평가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가능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교육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¹³

¹²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참고, 검색일: 2026.05.02.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B4%88%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undefined>

¹³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 고교학점제」, 검색일: 2026.05.02.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lev=0&statusYN=W&s=moe&m=0404&opType=N&boardSeq=93458>

이처럼 한국의 교육과정은 시대 변화에 따라 강조되는 내용과 방향은 달라졌으나, 공통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반영하며 발전해 왔다. 또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역량 함양, 민주 시민 의식 형성, 미래 사회 대응 능력 강화 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개정·발전해 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의 교육과정 역시 사회 변화와 미래 환경에 대응하며 계속해서 변화해 갈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을 시대별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해방 이후의 교육 재건기, 산업화 시기, 민주화 시기, 그리고 정보화·세계화 시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총론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각 시대의 사회적 요구와 국가적 상황이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 강조되고 있는 AI·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의 방향과 핵심 변화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교육과정 변화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과거 한국 교육과정의 변화 양상¹⁴

한국의 교육과정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와 국가 발전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¹⁵ 한국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미군정기인 1946년의 교수요목기를 시작으로, 1955년 제1차

¹⁴ 본 장에서는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한국의 교육과정의 변화를 논의하기 위한 장이므로 주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총론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따라서 과목별 교육과정 및 특수학교, 공민학교, 기술학교 등의 학교 유형별 교육과정 보다는 포괄적인 교육과정의 변화 흐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¹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교육령」, 참고, 검색일: 2026.05.02.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1933>. 한국 교육과정은 1945년 해방 이후의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한국 교육과정 이전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교육과정으로 「조선교육령」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교육은 조선인을 일본 제국에 동화시키고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었다. 일제는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여 일본어 교육과 일본 역사·문화 주입을 중심으로 한 차별적 교육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조선인의 교육을 「간이하고 실용적」 수준에 제한하였다. 이후 3·1운동 이후 문화통치로의 전환 속에서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이 제정되었지만, 내지연장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교육체계를 유지하였다.

교육과정이 제정된 이후¹⁶ 제2차(1963), 제3차(1973), 제4차(1981), 제5차(1987), 제6차(1992), 제7차 교육과정(1997)을 거쳐, 이후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된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현재 적용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화해 왔다. 특히 한국의 교육과정은 단순한 교과 내용의 수정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요구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은 단순히 개정 시기별 흐름만으로 설명하기보다, 각 시대가 요구한 사회적 가치와 국가 발전 방향,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방 직후에는 국가 체제 정비와 문해교육 확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이후 산업화 시기에는 경제 개발 정책과 연계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교육 기회의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민주화 이후에는 획일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교육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인간 중심 교육과 학생의 자율성, 지방 교육자치 확대 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보화와 세계화가 본격화된 시기에는 창의성과 다양성, 학습자 중심 교육, 핵심역량 함양 등이 주요 가치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AI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이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해방 이후 국가 교육체제의 기반이 형성된 시기이며, 둘째는 산업화와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국가 주도의 교육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셋째는 민주화 이후 교육의 인간화와 자율화, 분권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기이며, 넷째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영향 아래 수요자 중심 및 역량 중심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은 중일전쟁과 황민화 정책 강화 속에서 시행되었으며, 지원병 제도와 창씨개명 정책과 함께 조선인을 일본 제국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육성하고 전쟁 수행에 동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이어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전시체제가 강화되면서 수업연한 단축과 군사·노동 동원을 위한 교육 통제가 이루어졌고, 교육은 점차 전쟁 수행을 위한 국가 총동원 체제의 일부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교육은 민족 교육을 억압한 채 식민 통치와 황민화, 전쟁 동원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¹⁶ 1954년에는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령'(문교부령 제35호) 공포, 1955년에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본체 공포(문교부령 제44·45·46호) 하였다.

교육이 강조된 시기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 핵심역량과 디지털 소양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재구조화되고 있는 현재의 단계이다. 이처럼 한국 교육과정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의 목적과 내용, 운영 방식이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확장되어 왔다.

가. 해방 이후 교육과정¹⁷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교육은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교육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방향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 특히 미군정기였던 1946년에는 교수요목기가 시행되면서 해방 이후 한국 교육과정의 출발점이 마련되었다. 교수요목기는 교과별로 가르쳐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제시한 형태로, 미국식 경험 중심 교육사상의 영향을 받아 민주주의 교육 등을 강조하였다. 이후 한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5년에는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한국 최초의 공식 국가 교육과정으로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아래 민주 시민 양성과 국가 재건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육과정은 해방 이후 새로운 국가 교육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초기 단계의 교육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해방 이후 미군정기 시절, 교수요목기 교육과정은 일제강점기 동안 형성된 식민지 교육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민주주의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1945년 8월 광복 직후 조선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극심한 혼란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교육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학교 현장은 일본 제국주의 통치 아래 운영되던 「조선교육령」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었고, 교과 내용과 학교 운영 방식 또한 일본 중심의 식민 교육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어 사용 강요, 황국신민화 교육, 군국주의 이념 주입 등이 교육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와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일은 해방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미군정청은 교육을 단순한 학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질서와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보았으며,

¹⁷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우리나라교육과정 → 원문 및 해설서 → 1차 이전 및 1차 시기 → 총론」, 참고, 검색일: 2026. 5.2. <https://ncic.re.kr/inv/org/list.do>

[illegible]

<그림 4. 신 교육 방침(왼쪽) 및 당면한 교육 방침 결정(오른쪽)
자료 일부>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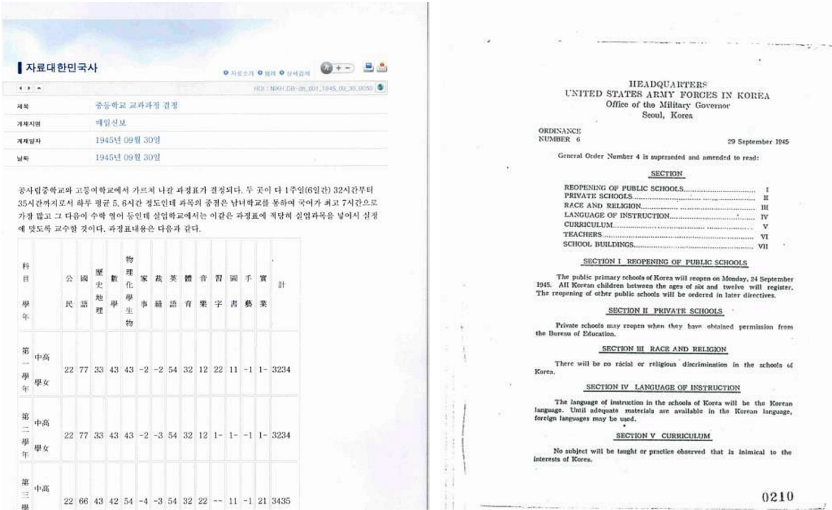
미군정청 학무국은 1945년 9월 「신교육방침」과 「당면한 교육방침 결정」 등을 발표하며 해방 이후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들은 기존 일본식 교육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강요되었던 황민화 교육과 군국주의 교육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가치와 자유, 평등, 인간 존중의 개념을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역사와 일본 중심 문화 교육은 축소되거나 폐지되었으며, 일본어 중심 수업 또한 점차 한국어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제한되었던 국어 사용과 한국 역사 교육은 다시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학교 현장에서는 조선인의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단순한 교과 변경을 넘어 식민지 교육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민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전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¹⁸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우리나라교육과정 → 원문 및 해설서 → 1차 이전 → 관련 자료」, 참고, 검색일: 2026. 5.2. <https://ncic.re.kr/inv/org/list.do>

또한 미군정은 교육을 특정 계층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로 인식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에게 제한적이며 동시에 차별적인 교육만 제공되었으며, 고등교육과 전문교육 기회 역시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교육 기회의 확대와 보통교육 정상화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학교 수업 재개와 학생 수용 확대가 추진되었으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행정 체계를 정비하려 하였다. 특히 초등 수준의 보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해방 이후 사회 혼란 속에서도 국민 교육의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실시된 의무교육 확대 정책과 국가 교육과정 체제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군정기 교육정책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철학과 경험 중심 교육사상의 도입이었다. 이전의 식민지 교육은 국가에 대한 복종과 암기 중심 교육을 강조하였으나, 미군정은 학생의 자율성과 경험을 중요하게 보는 미국식 교육철학을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학교 교육에서는 토론과 참여, 생활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이 강조되었으며, 교육 목적 또한 국가 권력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민주 시민 양성과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려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 중심 교육사상은 이후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육과정 형성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한국 교육과정이 미국식 교육이론을 수용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미군정은 학교 운영 정상화와 교과과정 재편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광복 직후 학교 현장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교사 부족과 시설 부족, 교과서 부족, 교육 행정 체계의 혼란 등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많은 일본인 교사들이 철수한 이후 교원 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였고,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 또한 대부분 일본식 교재였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군정청은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교원 확보와 교재 정비, 교육 행정 조직 재편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기존 일본식 교과서를 수정하거나 임시 교재를 제작하여 새로운 교육 방향을 반영하려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가치와 민족의식을 교육하기 위한 내용들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5. 중등학교 교과과정 결정(왼쪽) 및 교육의 조치(오른쪽) 자료 일부>¹⁹

1945년 발표된 「중등학교 교과과정 결정」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이를 통해 중등학교의 교과목과 수업 운영 방향이 새롭게 조정되었으며, 일본 중심 교육 내용을 줄이고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교과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미군정청 법령 제6호 「교육의 조치」는 학교 운영과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법령은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교육 상황 속에서 학교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교육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 역할을 하였다. 특히 기존 식민지 교육체도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건설에 맞는 교육 질서를 형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리하면, 해방 이후 미군정기의 교육과정은 식민지 교육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전환기의 교육개혁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교육은 단순한 학교를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국민을 형성하고 국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¹⁹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우리나라교육과정 → 원문 및 해설서 → 1차 이전 → 관련 자료」, 참고 검색일: 2026.5.2. <https://ncic.re.kr/inv/org/list.do>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이후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육과정, 나아가 한국 국가 교육과정 체제 형성의 출발점이 되었다.

다음으로 제1차 교육과정은 1955년에 제정된 한국 최초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해방 이후와 한국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통일된 교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한국은 1950년 6월 25일 이른바 한국 전쟁으로 인해 사회 전반이 큰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따라서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부는 교육을 국가 재건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하였고, 전국 학교에서 공통된 기준 아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의 교육 목표와 교과 편성, 시간 배당 등을 국가가 직접 규정한 최초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제1차 교육과정은 민주주의 교육 이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일제강점기의 교육은 국가에 대한 복종과 통제를 강조하는 성격이 강하였지만,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군정기를 거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었다. 교육과정에서는 공동생활, 사회생활, 민주적 태도, 협동심 등을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당시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은 당시 교육이 단순한 학문 중심 교육 즉, 내용 중심 교육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이념과 사회 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1차 교육과정은 생활 중심 교육과 실용주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다. 당시 한국은 전쟁이 끝난 지 1년 정도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교육 역시 국가 재건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학교에서는 단순 암기식 교육보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무 중심의 교육 내용을 강조하였고, 학생들이 사회와 산업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 특히 농업·상업·공업과 관련된 실업 교육과 기술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나아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과목들이 편성되기도 하였다. 이는 교육이 단순히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학교 교육과정²⁰에서는 읽기·쓰기·셈하기와 같은 기초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 당시에는 글을 알지 못해서 문맹률이 높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국민 전체의 기초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국어와 산수 과목의 비중이 크게 설정되었으며, 학생들이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동시에 사회생활, 자연,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등의 과목도 함께 편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였다. 특히 음악·미술·체육과 같은 예체능 교육도 일정한 비율로 운영되었다는 점은, 당시 교육이 단순 지식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까지 함께 고려하는 전인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국민학교보다 교과가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 중학교는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일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기능 및 직업 생활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에는 일반 중학교뿐만 아니라 실업계 중학교와 야간 중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운영되었으며,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상황 등에 따라 교육 내용의 일부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또한 선택 과목의 개념이 일부 도입되어 학생의 진로나 학교의 성격에 따라 교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당시에도 획일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적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계열화와 전문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계와 취업을 위한 실업계 교육의 구분이 점차 뚜렷하게 구분되었으며,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거나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가 운영되었다. 특히 산업·농업·상업·기술 관련 과목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전문 교과와 선택 과목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계열 구분과 선택 중심 교육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음악·미술·체육 등 특정 과목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²⁰ 1996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 고에서는 제 1차 교육과정 당시에 국민학교였기 때문에 국민학교라는 명칭으로 작성한다.

하여 균형 있는 교육을 실시하려 했다는 점도 당시 교육과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사범학교 교육과정 역시 제1차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사범학교는 당시 초등교육을 위한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교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교과만 아니라 교육 이론과 교육 실습 등을 포함하여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국가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양성 과정까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특히 해방 이후와 한국전쟁 직후에는 급격히 증가한 학생 수에 비해 교사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교사 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이전 교수요목기 당시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전문 교사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제1차 교육과정에서 사범학교 교육을 강화한 것은 당시 국가적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교사를 많이 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에 적합한 교육 이념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어 국가 재건과 국민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제1차 교육과정은 국가가 교육 내용을 강하게 주도하고 통일적으로 운영하였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당시 정부는 전국 학교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과 편성과 수업 시간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전쟁 이후 국가 체제를 안정시키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도 연결된다. 또한 교육을 통해 국민의 의식을 형성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제1차 교육과정은 한국 현대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민주 시민 양성, 생활 중심 교육, 실용주의 교육, 전인교육 등을 강조하면서 이후 한국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였다. 오늘날의 학교 즉,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와 국가 중심 교육 체제 역시 제1차 교육과정의 영향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따라서 제1차 교육과정은 단순한 교과 편성 기준을 넘어, 전후 한국 사회의 재건과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나. 산업화 시기의 교육과정²¹

제2차 교육과정(1963)과 제3차 교육과정(1973)은 한국의 경제 개발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추진된 교육과정으로, 국가 재건과 산업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었다. 특히 당시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²²과 함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의 역할을 넘어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산업 현장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생활 중심·경험 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생산성과 실용성을 중요하게 다루었고, 과학기술 교육과 실업·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화 사회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어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어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학문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탐구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또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관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을 육성하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 이 시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확대와 과학·기술 교육 강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도별 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제2차와 제3차 교육과정은 한국이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교육을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제2차 교육과정은 1963년에 공포된 교육과정으로, 제1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²¹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우리나라교육과정 → 원문 및 해설서 → 2차 시기 및 3차 시기 → 초·중·고등학교 총론」, 참고, 검색일: 2026.05.02. <https://ncic.re.kr/inv/org/list.do>

²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제개발계획」, 참고, 검색일: 2026.05.02,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2782> 국가가 국민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 5년 정도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하여 짠 계획을 의미한다. “1953년 3월에 발표되었던 국제연합한국부흥단(UNKRA)의 ‘한국경제재건계획(네이산보고서)’이 있었으나, 원조정책의 일환으로 작성된 건의보고서로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며, 1959년 3월 부흥부 산하에 있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작성된 경제개발3개년계획안(1960~1962)이 정부가 마련한 경제개발계획의 시초이다. 그 뒤 제2공화국에서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1~1965)을 작성하였으나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62년부터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어 오고 있다.”

당시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의 복구 단계를 지나 경제 개발과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였으며, 사회 전반에서 국가의 재건과 근·현대화를 위한 인재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지식 주입 중심이며 실제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다 현실적이며 생활 중심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교육과정이 한국 사회의 특수성 그리고 자주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와 현실에 적합한 교육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은 특히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핵심 방향으로 강조하였다. 먼저 자주성의 측면에서는 단순하고 보편적인 민주 시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국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교육은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동적인 인간을 기르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민주주의 이념과 반공 의식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 형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생산성과 유용성 역시 제2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이다. 당시 정부는 경제 재건과 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교육이 실제 생활과 국가 경제 발전에 직접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학생들이 만들고, 생산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과학 기술 교육과 실업 및 직업 교육의 강화가 강조되었다. 이는 당시 산업화와 경제 개발 정책이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2차 교육과정은 학년별 목표와 내용 체계를 보다 조직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교과 중심의 획일적인 운영이 아닌 학생의 경험과 활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국민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국민으로서 필요한 기초 교육 및 기본 생활 능력을 길러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당시 한국은 전쟁 이후 국가 재건과 사회 안정이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교육 역시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과 의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학교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태도와 습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생활 중심 교육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실제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익힌 내용을 현실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과 내용 또한 학생들의 주변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구성되었으며,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국민학교에서 배운 기초 교육을 바탕으로 보다 폭넓고 체계적인 일반 교육을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차 교육과정은 중학교를 단순한 상급학교 진학 준비 단계로만 보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통 교육의 단계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교양과 사고력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에 따라 선택 과목의 비중을 줄이고 공통 필수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학생들이 균형 있는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강조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단위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학생 중심의 융통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시도였으며, 학생 개인의 적성과 관심을 존중하려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공통 필수 과목 외에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당시 한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 개발과 산업화 등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적극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 역시 국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가정 교육을 체계화하고 농업·공업·상업·기술 교육 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산업 사회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특히 실업계 교육에서는 단순 이론 교육보다 실습과 기능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산업 현장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학 기술 교육의 비중도 확대되어 산업화 및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사고력과 기술 활용 능력을 기르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민주 시민 교육 역시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과와 도덕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학교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협동 정신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학생 자치 활동과

특별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였으며, 산업화 과정 속에서 요구되는 근면성과 책임감, 협동 정신을 기르도록 하였다.

정리하면 제2차 교육과정은 한국이 산업화 및 근·현대화를 추진하던 시기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자주성과 민주주의 의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생산성과 실용성을 강조하였고, 학생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차 교육과정은 한국 현대 교육이 단순한 기초교육 단계를 넘어 국가 발전과 산업 사회에 필요한 인간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73년 제3차 교육과정은 당시 한국 사회가 산업화와 국가 주도의 근·현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던 시기에 등장한 교육과정으로, 사실 제 2차 교육과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²³ 이 시기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간을 양성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목적을 두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권의 일명 10월 유신²⁴ 체제 아래에서 교육은 국가 이념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당시 “국민교육헌장”²⁵의 정신이 교육과정 전반에 깊게 반영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학교에서부터

²³ 제 2차 교육과정과 3차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교육과정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²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월유신」, 참고, 검색일: 2026.05.02.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2425> “시월유신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과 지배체제 강화를 위하여 단행한 초헌법적인 비상조치이다. 유신쿠데타라고도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위기 및 남북대화를 빌미로 장기집권을 위한 ‘10·17비상조치’를 단행했다. 국회 해산과 정치활동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비상국무회의가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기능 수행, 비상국무회의의 헌법개정과 국민투표, 개정 헌법에 따른 헌법질서 성립 등이 그 내용이다. 개헌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신체제라 불리는 권위주의 체제가 수립되어 1979년까지 지속됐다.”

²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민교육헌장」, 참고, 검색일: 2026.05.02.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6288>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12월 5일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를 담아 대통령령에 의해 반포된 헌장이다. 민족적 정체성과 근대화에 부합하는 윤리와 가치관의 형성을 기본 원리로 삼아 구성되어 있다. 학교 교육 및 사회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민족주의와 근대화 전략에 따라 재편성하는데 큰 영향을 발휘했으나 전문 암송 및 의식에서의 낭독 의무화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유신체제의 정당화에 활용되는 등 정치적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1980년대 이후 점차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1994년 문민정부 하에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연결되었으며, 학생들에게 민족 주체 의식, 반공 민주 정신, 국가관, 근면성과 협동성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산업화 및 근·현대화 필요한 기술 교육과 실용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기본 방향은 국민학교,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의 국민학교 교육은 학생의 기초 생활 능력과 국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민학교는 모든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 도덕성, 기초 학습 능력, 애국심을 형성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1968년에 반포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토대로 하여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해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하려 하였다. 국민학교 교육에서는 생활 중심 교육과 경험 중심 교육이 강조되었다.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으며, 읽기·쓰기·셈하기와 같은 기초 기능을 중시하였다. 당시 교과목 과정에서는 반공 교육과 애국 교육이 강하게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이 국가의 발전과 자신의 발전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도록 지도하였다. 국민학교의 특별활동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학급 활동, 학교 행사, 클럽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협동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성장과 사회적 관계 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논리적 사고력과 자율적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학교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중학교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발전과 민주적 가치 교육의 강조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자아 실현, 국가 발전, 민주적 가치의 강조를 일반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성실성과 탐구심, 창의력을 갖추고 국가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국민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났다. 또한 인간 존엄성과 자유, 책임, 질서 의식, 협동 정신 등을 강조하며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필요한 태도를 기르게 하였다. 교과 편제는 도덕,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외국어, 실업·가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교과 간의 연계와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여 학교 교육이 실제 사회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을 고등학교와 사회생활로 연결하는 중요한 단계로 기능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발전시키면서도 보다 높은 수준의 교양 교육과 진로 선택 교육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 시기가 학생들의 가치관이 확립되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성과 덕성, 풍부한 정서를 균형 있게 갖춘 인간 양성을 지향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필수 교과와 과정별 선택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학생들은 2학년부터 인문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으로 나누어 학습하게 되었으며, 이는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교육을 실현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외국어 과정, 예능 과정, 체육 과정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하였다. 교과 구성은 국민윤리,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외국어, 실업·가정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국민윤리는 국가관과 반공 민주 정신을 강화하는 핵심 과목이었다. 학생들에게 민족 중흥의 사명감과 국가 발전 의식을 심어 주고,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갖게 하려 하였다. 이에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 진학 준비와 교양 교육, 국가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었으며 동시에 학생들은 학문적 능력만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받았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제3차 교육과정의 산업화 지향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분야였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보통 교육과 함께 실업에 관한 기초적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자와 기능인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즉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공업계, 농업계, 상업계, 수산해양계 등 다양한 계열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학생들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함께 이수하였으며, 총 이수 단위 중 상당 부분이 전문 과목에 배정되었다. 전문 과목은 실제 산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구성되었고, 실험·실습 교육을 매우 중시하였다. 특히 전문 과목의 절반 이상이 실습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실업계 교육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태도 교육이었다. 학생들에게 근로 정신과 협동심, 성실성, 책임감을 강조하였으며, 노동을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이해하게 하였다. 또한 현장 실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의 연결을 강화하였다. 학교는 지역 사회의 산업 구조와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세분화된 전공 과정을 설치할 수도 있었다. 실업계 교육에서도 반공 민주 교육과 국민윤리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단순히 기술 교육 기관이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 전반이 산업화와 경제 개발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정리하면 제3차 교육과정은 1970년대 산업화와 유신 체제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한 교육과정이었다. 당시 교육은 국가 발전과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아래 민족 주체 의식과 국가관, 반공 민주 정신, 근면성과 협동 정신 등을 강조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국가 발전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국가주의와 반공 이념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제한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차 교육과정은 산업화 시기 인재 양성과 교육 체계 정비에 큰 영향을 미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 민주화 시기의 교육과정²⁶

제4차·제5차·제6차 교육과정은 민주화²⁷ 이전의 국가 중심 및 획일적 교육체제가 아닌 인간 중심·학생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어 가는 흐름을 보여 준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인간화와 전인교육을 강조하며 주입식 교육을 완화하고자 하였고,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학생의 개성과

²⁶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우리나라교육과정 → 원문 및 해설서 → 4차 시기 및 5차 시기 및 6차 시기 → 초·중·고등학교 총론」, 참고, 검색일: 2026.05.02. <https://ncic.re.kr/inv/org/list.do>

²⁷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주화」, 참고, 검색일: 2026.05.02.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8056>

민주화는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포괄한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확산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사회학 용어이다.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선구적 전환점을 제공한 것은 1960년 4월 혁명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며,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룬 것은 1987년 6월 항쟁이다.

자율성, 교육 내용의 다양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이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지방화·분권화 흐름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학교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제4차 교육과정은 1981년에 고시되어 시행된 교육과정으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국가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그 당시 사회는 산업화가 더욱 고도화되는 한편 민주·복지·정의 사회 구현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교육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제4차 교육과정은 이전 시기의 국가 중심 교육 기조를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도 인간 중심 교육과 전인교육을 보다 강화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이 강조되었으며, 이해와 탐구 중심 학습을 확대하려 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 인격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풍부한 정서를 지닌 인간, 문제 해결력 및 탐구 능력을 갖춘 인간, 자율성과 책임감을 실천하는 인간, 공동체 의식과 국가관을 가진 인간을 기르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 4차 교육과정에서 국민학교는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생활 태도를 형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 생활 경험을 고려한 인간 중심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풍부한 정서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예절, 질서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기르도록 하였다. 또한 단순한 지식 암기보다는 일상생활 속 경험과 연결된 학습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학생들이 주변 자연과 사회를 스스로 관찰하고 탐구하며 사고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 자립적인 생활 태도와 근검 절약의 자세 역시 중요한 교육 목표로 제시되었다. 한편 어린이회 활동과 클럽 활동, 학교 행사 등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성과 협동심, 사회성을 기르도록 하였으며,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적 생활 태도를 익히도록 하였다.

제 4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는 국민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자율적 판단 능력, 진로 탐색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시기의 국가 중심 및 주입식 교육 방식에 대한 변화를 중심으로 학생 중심 교육과 전인교육을 보다 강화하였으며,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적성,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국민학교 교육이 기본 생활 습관과 기초 능력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중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스스로 사고하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단계로 이해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중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한 생활 태도와 풍부한 정서 함양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학생들이 건전한 취미 생활과 여가 활동을 통해 균형 잡힌 생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강인한 체력과 의지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생활 전반과 인격 형성을 함께 고려하려는 인간 중심 교육의 흐름을 보여 준다. 더불어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자율적 실천 능력을 중요하게 보았다.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 속 여러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의 행동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를 강조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께 함양하고자 하였다. 이는 탐구 활동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확대하려는 당시 교육 개혁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편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 함양 역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었다. 학생들이 민주적 생활 원리와 사회 질서를 이해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과 국가관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회 활동과 클럽 활동, 학교 행사 등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 책임감을 기르도록 하였으며,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적 생활 태도를 익히도록 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를 가치관이 형성·확립되는 중요한 단계로 보아, 지성과 덕성의 균형 있는 성장을 강조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가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역시 학생 중심의 교육 운영을 확대하려 하였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흥미를 존중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인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학생들이 강한 체력과 풍부한 정서,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인간 존중, 자율성과 책임감, 협동 정신과 봉사 정신 등을 강조하며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태도를 기르도록 하였다. 탐구력과 문제 해결 능력 역시 중요한 교육 목표였다.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 현상을 탐구하고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이해와 적용 중심의 학습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평생교육의 기초 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공동체 의식과 국가관 교육도 계속해서 강조되었다. 학생들에게 국가 발전 참여 의식과 평화 통일 의지를 기르게 하고, 사회 질서와 공동체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산업 사회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과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산업 구조의 변화와 경제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능력과 직업 의식을 갖춘 인간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실업계 교육에서는 전문성과 실용성이 강조되었다.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실험·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이론과 실체가 분리되지 않도록 현장 경험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또한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의 연계를 강화하여 변화하는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 운영이 이루어졌다. 학교는 지역 사회와 산업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희망과 능력을 고려한 진로 지도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 기능 인력 양성을 넘어 변화하는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전인교육과 공동체 교육은 중요한 요소였다. 학생들에게 근로 정신과 책임감, 협동심, 준법 정신 등을 강조하였으며,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태도를 기르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 발전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취미와 특기 계발, 자율적 활동 확대도 강조되었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보다 인간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제4차 교육과정은 산업화 시기의 국가 중심 교육에서 점차 인간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교육과정이었다. 이전 시기의 국가 발전 중심 교육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학생의 개성과 적성,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었다. 특히 민주·복지·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목표 아래 전인교육과 탐구 중심 학습, 진로 교육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인간 중심 교육과 탐구 활동,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공통된 방향 속에서 운영되었다. 또한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일부 강화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이해와 적용, 문제 해결 중심 학습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제4차 교육과정은 산업화 이후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화 교육과 학생 중심 교육을 확대하려 했던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5차 교육과정은 1987년 고시되어 시행된 교육과정으로, 민주화 이후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와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 중심 교육과 자율성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한 교육과정이다. 이전 시기의 인간 중심·전인교육 흐름을 이어받으면서도 학생의 개성과 적성, 창의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대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 과정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자기 실현을 돕는 과정으로 이해하였으며,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민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 형성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지역 사회의 특성,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탐구 활동과 자기주도적 학습, 진로 탐색 능력 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는 산업화 시기의 국가 중심·획일적 교육 체제에서 점차 학생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제5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기초 생활 능력과 바른 생활 태도를 형성하면서도,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르는 기초 교육 단계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민학교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한 전인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건강한 신체와 풍부한 정서, 기본적인 학습 능력과 생활 습관을 균형 있게

기르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일상생활과 연계된 경험 중심 학습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탐구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확대하려 하였다. 또한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동체 의식과 질서 의식, 협동 정신 등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였으며, 자율적인 참여 태도와 책임감을 기르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 이전 시기보다 학생의 흥미와 개성을 고려한 교육 활동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학교생활 전반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제5차 중학교 교육과정은 국민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서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 능력과 민주 시민 의식, 진로 탐색 능력을 본격적으로 기르는 단계로 이해되었다. 특히 중학생 시기의 신체적·정서적 변화와 개성 발달을 고려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 운영을 강조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또한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탐구 능력의 신장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다양한 학습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었는데, 학생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학교와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는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 지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교육활동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제5차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 진로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 속에서 보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 운영을 강조하였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가치관과 자질을 형성하고,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 선택 중심 교육이 확대되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정별·선택 중심 운영이 강화되었으며, 학생 개인의 흥미와 진로를 고려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 하였다. 또한 탐구 활동과 이해 중심 학습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단순 암기보다는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민주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 역시 중요한 가치로 제시되었으며, 인간 존중과 협동 정신, 책임감 등을 바탕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 형성을 추구하였다. 이와 함께 진로 상담과 선택 지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중요한 특징이었다.

제5차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면서도,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인간 중심 직업교육을 강조하였다. 실업계 교육은 실제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습 및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산업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면서도 단순 기능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과 책임감, 협동 정신 등을 함께 함양하도록 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하였으며, 지역 산업 구조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활동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장 실습과 실기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 학습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전 시기의 단순 산업 인력 양성 중심 교육에서 보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직업교육 체제로 변화해 가는 흐름을 보여 준다.

정리하면 제5차 교육과정은 민주화가 진행되며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인간 중심·학생 중심 교육을 보다 확대하려 한 교육과정이었다. 이전 시기의 산업화 중심 교육 기조를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도 학생의 개성과 적성,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흐름이 변화해 갔다. 또한 학교 운영의 유연성과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탐구 활동과 이해 중심 학습을 강조함으로써 이후 제6차 교육과정의 지방화·분권화 흐름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제6차 교육과정은 1992년에 고시된 교육과정으로, 이전의 국가 주도 및 중앙집중적 교육 체제에서 점차 벗어나 지방화와 교육 자치의 흐름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4차와 제5차 교육과정에서 인간 중심·학생 중심 교육이 강조되었다면, 제6차 교육과정은 이를 실제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 차원으로 확대하려 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운영을 강조하면서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일부 확대하였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중시하였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의 중심이 이동하였으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생활 경험을 고려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는 산업화 시기의 기능 중심·국가 중심 교육에서 점차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변화해 가는 흐름을 보여 준다.

제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기초 생활 능력과 기본 학습 능력을 충실히 기르면서도, 자기 주도적 생활 태도와 전인적 성장을 강조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국민학교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통합적 교육을 중시하였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학교와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활동을 확대하려 하였으며, 학생들의 개성과 흥미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 운영이 이루어졌다. 특히 기본 생활 습관과 공동체 의식, 책임감과 협동심 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강조하였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이는 학생의 삶과 경험을 중요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제6차 중학교 교육과정은 국민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서 학생들의 자율성과 진로 탐색 능력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중학생 시기의 발달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이해하고 미래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향이 강조되었다. 또한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기르도록 하였으며, 학교생활 속에서 자율적 판단과 참여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 중심 학습과 탐구 활동을 강조하였고,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 현상과 생활 문제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특히 국제 사회와 정보화 사회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일부 반영되었으나, 핵심은 어디까지나 학생 중심 교육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확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와 진로 중심 교육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과 학습 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려 하였다. 또한 단순한 대학 진학 준비를 넘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으며,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 역시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졌다. 이는 학생 개인의 성장과

자아 실현을 보다 중요하게 바라보기 시작하였음을 보여 준다.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현장 적응 능력을 강조하였다. 이전 시기의 단순 기능 인력 양성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변화하는 산업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실무 능력과 직업 의식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한 다양한 진로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학교와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활동을 확대하려 하였다. 실업계 교육에서도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실생활과 연결된 학습 경험과 현장 중심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일률적인 기술 교육에서 점차 다양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흐름을 보여 준다. 정리하면 제6차 교육과정은 인간 중심·학생 중심 교육의 흐름을 실제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 차원으로 확대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지방화와 교육 자치의 흐름 속에서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일부 확대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 진로를 고려한 교육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핵심 특징이었다. 제6차 교육과정은 학생 개인의 차이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려 하였으며,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후 교육과정 변화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의 교육과정²⁸

제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는 시기는 정보화·세계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며 학생의 선택권과 자율성,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수준별·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어 2007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자율화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주5일제 수업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학교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량 적정화와 창의·인성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²⁸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우리나라교육과정 → 원문 및 해설서 → 7차 시기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2015년 개정 교육 → 초·중·고등학교 총론」, 참고, 검색일: 2026. 5.2. <https://ncic.re.kr/inv/org/list.do>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으며, 자기 주도적 학습과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을 중시하였다. 이처럼 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다양성과 미래 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에 고시된 교육과정으로 이전의 제4·5·6차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단순히 인간 중심·학생 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화·세계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인재 양성을 주요 핵심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특히 학습자의 능력과 적성, 흥미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학교 운영에서도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이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학교 중심 교육과정과 지방화 흐름이 실제 교육 운영 체계 속에서 더욱 구체화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순 지식 습득보다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정보 활용 능력 등을 강조하면서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간상을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제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생활 능력과 기본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의 흥미와 경험을 고려한 활동 중심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학습 내용을 실제 생활과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 태도를 기르는 방향이 강화되었고, 단순 암기식 학습보다는 탐구와 체험 중심 학습을 확대하려 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며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공동체 생활 속에서 협력과 배려를 실천하는 태도 역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었다.

제 7차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진로 탐색 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중학생 시기를 자기 이해와 진로 설계의 중요한 단계로 보았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민주 시민 의식과 공동체 생활 능력을 강조하면서도, 이전 시기보다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더욱 중요하게 다루었다. 특히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학생 개인의 학습 능력 차이를 고려하려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이는 학습자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반영하려는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학생들이 생활 속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판단하는

경험을 확대하려 하였다는 점에서도 이전 시기와 차이를 보인다.

제 7차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역시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강조하였고, 단순 대학 입시 준비를 넘어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되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제 7차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산업 구조 변화와 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직업 능력 함양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전 시기의 기능 중심 직업 교육에서 나아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직업 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강조하였으며, 실습과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이 확대되었고, 정보 활용 능력과 기술 변화 대응 능력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미래 산업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지향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산업 현장과 학교 교육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실제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제7차 교육과정은 정보화·세계화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학생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한 교육과정이었다. 제4·5차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었던 인간 중심 교육과 제6차 교육과정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의 흐름과 이어지면서도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을 실제 제도 운영 차원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학생의 능력과 적성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국 교육의 방향이 보다 다양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공통성과 지역·학교·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함께 추구하고자 한 교육과정이었다. 또한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으며,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수준별

교육과정과 재량 활동 운영을 통해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2007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생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습 활동을 강조하였으며, 창의적 재량 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활동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특히 체험 중심 학습 활동과 다양한 교육 활동 운영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과 자율적인 학습 태도를 기르도록 하였다.

2007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연장선에서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특히 수학과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량 활동과 선택 학습을 통해 학생의 학습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학습 활동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적성 계발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의 특성과 교육 목적에 따라 선택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였다.

정리하면,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교육과정이었다. 또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공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학교와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수준별 교육과정과 재량 활동 운영을 통해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 다음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공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한 교육과정이었다. 특히 학년군과 교과군을 도입하여 학교가 교육과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집중이수제를 통해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강조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학생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평생 학습의 기초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생의 발달 단계와 흥미를 고려한 학습 활동을 강조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체험 활동과 생활 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학년군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기르도록 하였다.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년군과 교과군 운영을 통해 학교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집중이수제를 통해 학습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존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중학교 단계까지로 조정하고, 고등학교 전 과정을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군 운영과 집중이수제를 통해 학교가 교육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리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한 교육과정이었다. 특히 학년군·교과군 운영과 집중이수제를 도입하여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보다 탄력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교육을 강화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간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 교육과정이었다. 특히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이를 위해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공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교실 수업 개선을 강조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평생 학습의 기본이 되는 기초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생의

발달 단계와 생활 경험을 고려한 학습 활동을 강조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 활동과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을 기르도록 하였으며, 바른 인성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2015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이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며, 공통 과목을 통해 모든 학생이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기본 학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등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는 학생의 진로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진로 설계를 강조하였다.

정리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학생의 성장과 미래 사회 대응 능력을 강조한 교육과정이었다. 또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교실 수업 개선을 강조하였으며, 자유학기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 삶과 학습 경험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지금까지 해방 이후의 교수요목기부터 산업화 시기, 민주화 시기, 정보화·세계화 시기를 거치며 변화해 온 한국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다. 특히 교수요목기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교육과정은 국가·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국가 중심 교육에서 학생 중심 교육으로, 지식 중심 교육에서 핵심역량 중심 교육으로 점차 변화·발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 핵심역량과 창의성 중심 교육 강화 등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현재 순차적으로 적용 중이다. 다음 장에서는 최근 한국 교육과정이 AI·디지털 전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과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최근 한국 교육과정의 방향: AI 디지털 시대 교육과정의 변화²⁹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기후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사회 변화가 나타나면서 국가 교육과정 역시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삶과 역량을 중심으로 한 미래 대응형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교육 환경과 학습 방식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으며, 디지털 소양과 창의·융합적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 적용 확대와 AI·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 미래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의 학생 중심·핵심역량 중심 교육의 방향을 계승하면서도,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이었다. 특히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중심으로 자기 주도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디지털 소양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간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체제를 재구성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²⁹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우리나라교육과정 → 원문 및 해설서 → 2022 개정 시기 → 총론」, 참고, 검색일: 2026. 5.2. <https://ncic.re.kr/inv/org/list.do>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기초 학습 능력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생의 삶과 경험을 반영한 학습 활동을 강조하였으며, 놀이와 체험 중심 활동, 디지털 활용 교육 등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공동체 의식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 속에서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고 새롭게 도입된 진로 연계 교육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도, 학습자의 과목 선택권과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전면 적용을 고려한 교육과정 체제로 전환하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공통 과목과 개편된 선택 과목 체계(일반선택·융합선택·진로선택)를 바탕으로 디지털·인공지능 사회에 필요한 기초 소양과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지털 소양 함양과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융합·진로 선택 과목 운영을 강조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어 온 학생 중심 교육과 핵심역량 중심 교육의 흐름을 계승하면서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중심으로 자기 주도성, 창의성, 디지털 소양, 공동체 역량 등을 강조하였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는 교수요목기 이후 국가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변화해 온 한국 교육과정이 미래 사회 대응과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방향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결국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단순한 교과 내용의 조정이나 단편적인 제도 변화를 넘어, 미래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 선회라는 점에서 깊은 뜻이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가속화 속에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과 창의성, 디지털 소양 및 공동체 역량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미래 지향적 인간상을 뚜렷이 반영하였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 체제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전면 강화하였다. 이는 해방 이후 국가 중심 교육과 산업화 시기의 지식 중심 교육, 민주화 이후의 학생 중심 교육,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핵심역량 중심 교육으로 이어져 온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 철학이 AI·디지털 대전환기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또 한 번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의 대격변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혁신적 전환점으로서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한국의 교육과정은 해방 이후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발전해 왔다. 교수요목기와 초기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재건과 기초 학력 배양, 체계적인 교과 지도가 강조되었으며, 산업화 시기에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학문 중심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후 사회의 민주화와 다양화가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 중심·학생 중심 교육과 통합 교육과정, 열린 교육, 지방분권형 교육과정 운영 등이 점차 강조되었으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는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강화되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는 핵심역량 중심 교육이 본격적으로 강조되면서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체제가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 역시 미래형 교육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소양과 창의·융합적 사고력, 자기 주도성, 공동체 역량 등을 강조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등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을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교육과정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가 중심 교육에서 학생 중심 교육으로, 지식 중심 교육에서 핵심역량 중심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한국 교육과정, 교육과정 변천,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디지털 소양, 인공지능 교육, 고교학점제

참고문헌

1.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n.d.). *KEDI*.

Retrieved June 5, 2026, from <https://www.kedi.re.kr>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n.d.). *KICCE*.

Retrieved June 5, 2026, from <https://www.kicce.re.kr>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KICE). (n.d.). *KICE*.

Retrieved June 5, 2026, from <https://www.kice.re.kr>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n.d.). *Ministry of Education*. Retrieved June 5, 2026, from <https://www.moe.go.kr>

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Republic of Korea). (n.d.). *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Retrieved June 5, 2026, from <https://www.ne.go.kr>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NCIC). (n.d.).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Retrieved June 5, 2026, from <https://ncic.re.kr>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NILE). (n.d.).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Retrieved June 5, 2026, from <https://www.nile.or.kr>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n.d.).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Retrieved June 5, 2026, from <https://www.law.go.kr>